

# “교구별 불교학교, 청년 위한 대안학교 설립돼야” “4포세대 힐링캠프, 대불련 범우 전용 기숙사도”

## ■ 주요 결과 살펴보니...

8개 주제를 잡아 '월드카페' 형식의 난장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제2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난장 주제별 결론을 도출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포교'를 하도록 한 첫 주제부터 4포세대 위한 포교방편을 테마로 한 마지막 주제까지 8개 난장토론 결과를 요약했다.

어린이법회를 여는 사찰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진국에서 제일 좋은 절은 '진절'이다"라며 "산중이든 도회지이든 스님들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을 절에 오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 포교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투자와 숲속 유치원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 방과 후 영어나 중국어 학습을 위해 원어민 교사 활용, 학부모를 강의 운영주체로 활용하는 방안, 어린이를 위한 상담 진행, 어린이 법회를 졸업한 중등부 이상 학생을 보조교사로 참여케 하는 방안 등이다.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사찰 스님들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사찰별 어린이법회 의무화와 함께 의무 있는 지도자 스님을 적절히 배치하고 학교와 지자체 운영프로그램에 스님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중2병을 스님들은 아십니까?'조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승가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이끌어냈다. 정운스님은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보고 중2병을 전체적인 청소년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승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면서 "본사별 의무사항을 두어 청소년 법인과 청소년 법회 의무화 등을 통해 불자청소년을 양성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미래를 위해 이것만은 버리자(휴지통)'조에서는 불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버려야 할 점을 내놓았다. 돈에 대한 집착, 상호존중하지 않는 문화, 문화재보수기금 의존, 시대에 뒤쳐진 교육시스템, 사부대중 내 차별, 불교 내외부적으로 화합하지 않는 풍토,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 토골문화, 승가 내 선거제도, 깨달음 지상주의, 허례허식(장례식 여부문화

'승가가 먼저 변해야 한다' 미래세대 위한 과제 '눈길'

사찰 어린이법회 의무화  
주지 인사 등 고과 반영

'100억 기금' 설립 활용  
노후스님 설명에도 '주목'

등), 노인에 대한 무례함, 기복신앙 근대성(본건성) 등을 들었다.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미래세대 위해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100억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노후스님은 "100억원은 매월 200만원씩 42년, 매월 1000만원씩 8년 정도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하며 "중단 차원에서 100억원의 후원금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또 100억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100억원을 저축하고 3억원의 이자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방법, 어린이 유치원과 교구본사별 대안학교 등을 건립하는 법, 대불련을 위한 장학금과 기숙사를 마련해 학사를 지원하는 법,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해 10년간 20여명에게 연봉 5000만원을 제공하는 것, 부처님의 생애를 뮤지컬로 만들거나 세계적인 밴드 결성하고 불교전문 영화관 등의 문화콘텐츠 사업 확장, 한국 스님들을 유학보내는 승가에 대한 투자 등을 내놨다.

'김일병, 왜 법당가니?'조에서는 군 포교 활성화와 연계제도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법당에 장병 유치를 위한 방법과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방안, 전역 이후 불교와 인연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1사찰 1부대 자매결연과 군포교 협의제 구성, 호기심을 끌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과 초코파이나 피자 등의 음식을 제공해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치유를 위한 명상 등의 힐링 프로그램과 관심사별 등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 등 불교의 강점인 편안함을 살리기 위한 방법도 제시됐다. 이



8개 주제별 '난장' 진행자이자 최종결과 발표자. 얼굴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현스님, 정운스님, 이향민, 노후스님, 장성화, 전준호, 이재은, 정웅기. 아래 사진은 일곱 번째 주제 20대와 나누는 20대 이야기- '내가 세내기 대학생이라면' 난장.

어 교구본사 차원의 군포교 전략으로 말사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 비어있는 법당에 대한 문제해결과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알리기 위한 포교의 질적향상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내가 포교원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조에서는 포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의견도 제시됐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불교 용어집과 신심 고양을 위한 통일된 교재 제작, 법륜스님처럼 즉문즉설이 가능한 100명의 법사 양성, 포교원의 집행기구로서의 충실성 강화, 포교원의 교단 내 포교 위상 강화, '포교없이 불교도 좋단도 없다'는 생각으로 포교를 최우선 정책으로 둘 것, 비구니 포교국 신설, 포교당 주지 임기 무효화와 포교당에 대한 분담금 면제, 불교인론을 집중 육성해 콘텐츠 개발 할 것, 현장과 소

통위해 포교원장의 매주 교구본사 방문, 사부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포교할 것, 포교 공적 인사를 반영한 인사고과제 시행, 계층별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각 직원의 적절한 배치, 신도들이 편하게 될 수 있는 사찰 공간의 재구성, SNS 및 어플을 활용한 현대적 포교 매체 보급, 불교신협 통한 저금리 대출과 상환 및 불교동아리 활동에 대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내가 15학번 세내기라면?'조에서는 대학 세내기로서 불교 동아리에 입문한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채우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세내기 불자들이 불교에 바라는 점은 상담 스님들과의 만남,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지도, 사찰순례와 단기출가 및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 대불련 연합 활동 통한 불심 깊은 친구들과의 만남,

## ▶ tip '월드카페'란?

제2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8개 주제별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주제별 난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별 난장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자유롭게 모아가는 현대적인 집단 지성 기법인 '월드카페'를 응용한 방식이다. 월드카페는 카페와 같이 자유롭게 열린 공간에서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나 생성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시민활동,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화 테이블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종이와 사인펜, 색연필과 같은 필기도구와 포스트잇을 준비하여 올려놓으며, 진행자 1인이 참가자들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각종 기록의 도구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며, 1차 대화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진행자를 제외하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해 새로운 논의를 이어간다. 모든 대화가 마무리되면 테이블별 진행자들이 대화 내용을 공유한다. **염태규 기자**

불교의 역사와 문화 알기, 영어와 한자 공부, '스타 스님'의 토크 콘서트, 해외 성지순례나 봉사활동, 불교학생회 장학금과 불교 동아리 운영지원금 확충 등이다.

'사찰,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4포세대를 위한 희망의 끝단지'조에서는 '사찰을 4포세대의 힐링캠프프로'를 기조로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시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패배자가 아닌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여겨다보며 무료 템플스테이 개최 등을 나누며, "잡다한 가치를 알려주도록 청년들의 진로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청년을 위한 교재와 콘텐츠 개발, 사찰법과 농토 활용에 불자 공동체 생산하고 청년 도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불교공간 만들기", "교구별 불자학교 및 청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등과 함께 지역 사찰과 대학을 모임을 연대할 수 있도록 중단 차원에서의 노력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특별취재팀**

## ■ 이모저모

### 청량사 어린이밴드에 큰 박수

○... 이번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100여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는 봉화 청량사 어린이법회 출신들이 선보인 음악공연이다. 2년 전 결성된 7인조 밴드 '동근소리'와 사물놀이패 '꼬마풍경' 등 두 그룹은 소속 20여명의 어린이들은 '나성에 가면', '오늘은 좋은날' 등의 노래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청량사 신도인 아이들 엄마들도 이날 대중공사를 참관했다. 5세부터 10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는 '동근소리'와 '꼬마풍경'은 중등부가 된 '선배' 어린이가 초등부를 가르치는 등 서로서로 마음을 모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사물놀이팀 윤정현(영주중2) 군은 "절에서 친구도 사귀게 됐고 공연도 할 수 있어 즐겁다. 불교가 우리들을 위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염태규 기자**

### 총무원장 스님 난장 적극 참여

○... 2차 100인 대중공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군 등 8개 주제로 이뤄진 주제별 난장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중2병을 스님들은 아십니까?"를 주제로 마련된 토론에 참석할 때 이어 차례로 '애들이 바글바글한 절! 왜일까요?', '내가 15학번 세내기라면?', '김일병, 왜 법당가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했다. 특히 군과 교도소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교구본사와 직할 사찰이 연계해 군법당이나 교도소를 돌아다니며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구와 지역 사찰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버섯탕수 등 8찬 사찰음식 인기

○... 이날 사부대중 대중공사의 본격토론에 앞서 사부대중은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장이자 절살림을 맡고 있는 구과스님이 개발한 정갈한 사찰음식들로 배를 든든히 채웠다. 문화연수원 갈로탕 음식은 오신채를 쓰지 않고 계절음식으로 맛깔스러운 영양 밥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날만큼은 긴 시간동안 토론을 이어갈 150여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위해 기본 6찬에 두 가지 찬이 더 추가됐다. 건강을 생각한 기장밥과 함께 겨우 무료 만든 무조림과 시래기국, 볶음우동, 버섯탕수, 채소 샐러드, 김치, 단무지 등이 제공됐다. 구과스님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한껏 칭찬해주신다 고마움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수습기자 kyee@ibulgyo.com**

### 대불련 대학생들 대거 참여

○... 2차 대중공사에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만큼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입제식에서 이재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대학생 등 20대 청년들의 현실과 이에 걸맞는 포교방편을 소개하며 효율적인 대중공사의 분위기를 유도했다. 또한 대불련 홍지연 지도위원장과 신규동 서울지부장, 김태현 대전지부장, 박상철 충북지부장, 김유진·이명진·윤동원 중앙집행위원 등이 2차 대중공사 주관인으로 참여해 모듬토론과 주제별 난장 자리 등을 통해 토크 튀는 20대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 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중헌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계대상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수계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2559(2015)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계 단 명】 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산림기간】 불기2559(2015)년 4월 7일(화, 음 2.19) ~ 15일(수, 음 2.27) - 8박 9일

【장 소】 제8교구본사 직지사(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소재)

【수계대상】

- ① 2011년 3월(수계교육 40기 수료자)까지 사미계·식처마니계를 수지한 사미·식처마니나 로서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중앙승가대학/동국대 불교대학/기본선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94년 이전 출가자(94년 포함)로 선원 8만개(4등·4하) 성만자
- ② 중헌·종법상의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③ 교육원에서 실시한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 ④ '결계및포살에관한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대중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사미·식처마니나 4급 승가고시 응시 및 구족계 수계자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됨

【접수기간】 2015년 3월 9일(월, 음1.19) ~ 18일(수, 음1.28), 18일 도착분에 한 함

- \* 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접수처 : 각 재적 교구본사(직할교구 재적승은 교육원 교육부로 접수)
- \* 교구본사는 취합된 서류를 3월 23일(월)까지 교육원 교육부로 제출

【제출서류】

- \* 아래의 서류는 4급 승가고시 원서 접수시 동봉하여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1부
- ②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 94년 이전 출가자(94년 포함)로 선원 8만개(4등·4하) 성만자는 안거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 (각 해당 선원 발급-선원장 명의) 제출
-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원본) .....각1부
- ④ 최종학력증명서(고졸이상 학력 확인용) .....1부
- ⑤ 주민등록증 복사본(사찰 / 승복착용-사미의제) .....1부
- ⑥ 증명사진-종단 대가사·장삼(사미의제 없이) 수한 사진 3cm×4cm-승려증 제작용) ..... 5매
- ⑦ 건강진단서(총무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 또는 검사항목) .....1부
- ⑧ 자필유언장(인간살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각1부

【입 방】

- ①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4월 7일(화) 정오(12시)까지 직지사에 도착하여야 함. - 사미 : 만덕전으로 집결 - 식처마니 : 설법전으로 집결
- \* 2월 4일자 불교신문 총무행정에서 안내된 입방일자는 잘못된 일지입니다.
- ② 준비물 : 만의가사, 장삼, 사미의제·행전착용, 목탁, 요령, 발우, 흰색교무신, 우산, 식발용 면도기, 세면도구, 필기도구, 사미·사미니중, 신봉중, 무채색 수속
- \* 수계산림 참석시 준비물은 반드시 결망에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 \* 개인 침구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의사항】

-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족계 수계를 무효로 합니다.
- ② 4급 승가고시는 3월 27일(금)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행함
- ③ 구족계 수계 지원자에게 대가사를 수여하오니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
- \* 신상명세서 작성시 본인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 사이즈를 반드시 기재하며 단, 가슴둘레 작성시 장삼을 수한 후의 가슴둘레를 기재하기 바랍니다.(가사 제작시 필요)
- ④ 건강진단서는 총무원에서 정한 건강진단서의 모든 항목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인정
- ⑤ 사진은 승려증 제작용으로 반드시 종단 대가사·장삼(사미의제 없이)을 수한 사진 제출, 단, 4급 승가고시 지원서에는 사미의제를 착용한 사진 2매 부착
- ⑥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삭발하고 승복(사미의제)을 착용한 사진만 허용, 속복 사진이나 사미의제가 없는 주민등록증인 경우에는 재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재발급 확인시 허용)
- ⑦ '결계및포살에관한법' 적용기준 안내 2010년 하·동/2011년 하·동/2012년 하·동/2013년 하·동/2014년 하인거 등재 필요
- ⑧ 제출서류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co.kr) 종단소식)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⑨ 구족계 수계 지원서 작성 시 직접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휴대전화 반드시 포함) 및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현재 거주사찰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⑩ 모든 서류는 재적본사를 경유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처】

- 4급 승가고시 관련 문의 : 교육원 교육부 ☎ 02) 2011-1809 Fax 02) 732-4926
- 구족계 수계산림관련 문의 :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